문화관광체험상품으로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안동지역 사례로-

A Study on the temple stay as culture tourism experience products Case of Andong City Region

김 용 남, 권 기 창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창조산업연구소

Kim yong-nam, Kwon gi-Chang
Graduate School of Creative Industry, Research Cenfer for Creafive Industry, And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문화관광상품으로서 템플스테이가 지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안동지역 운영 사찰들의 현황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Ⅰ. 서론

2002년 월드컵과 함께 외국인들의 숙박문제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것 중 하나가 템플스테이이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관광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하였다.[1] 따라서 안동은 유교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관광지로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안동지역의 템플스테이를 단순한 불교문화체험이 아닌 복합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템플스테이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서 차별화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체험관광

조현호 · 유영준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관광형태가 자신의 개별적인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고, 관광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문화상품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2]

박석희는 관광은 인간의 지적 · 심리 · 사회적인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고 관광을 통해 문화수준을 높이며 지식과 경험의 폭을 넓혀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고 하였다. 결국 이런 의미에서 관광은 자기개발적 측면이 강하다고 하였다[3]

2. 템플스테이

불교 사찰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고 국보급을 비롯한 80%의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템플스테이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한국의 불교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과 수행 일부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불교의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과 경내에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종합 문화생활 체험프로그램이다. 또한 단순히 숙박을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기거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불교 문화의 정신적 가치, 전통문화와 수행 정신을 함께 체험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Ⅲ. 안동지역 문화관광체험상품으로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방안

1. 템플스테이 SWOT 분석

현재 사찰에서는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결합한 체험프로그램과 사찰의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문화재를 결합한 관광 프로그램들을 운영 해야 하는데 단순히 사찰에만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차별화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SWOT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1.안동지역 템플스테이 SWOT분석

강점	약점
-세계문화유산등 많은 문화자원을 보유 -다양한문화(유교,불교) -한국대표축제보유	-타종교에대한불교 이미지 고정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미지가 강함
기회	**위협**
-가족단위 관광객 증가 -물질적→정신적가치 추구로 변화 -OECD 템플스테이대해 좋은 평가 받음	-유사한 템플스테이 사찰이 분포 -농.어촌 문화체험, 고택문화체험이 많이 분포

3. 운영 프로그램 분석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물과 관련된 역사 고육 프로그램은 없고 예불, 발우공양, 참선, 다도, 염주 만들기 등 단순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다. 안동시 안기동 석수암의 가장 큰 특징은 산속이 아닌 도심의 가운데서 산속의 기운을 느낄수 있는 사찰이지만 예불, 참선, 스님과 차담만이 진행된다. 안동시 서후면의 광흥사는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이 안치되어 있었던 곳이며 학가산에 위치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행을 할 수 있는 사찰임에도 예불, 참회 정진 등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기존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스님과 차담, 자기성장체험, 참회정진 중 선택하여 사용함으로 사찰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사찰의 특성과 지역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4. 대안프로그램 개발

각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불교문화자원, 스토리자원, 주변지역문화자원과 불교의 정신적 가치가 결합된 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어야 한다. 사찰별로 제안한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프로그램 개발(안)

	불교	전통	사찰	주변연계
봉정사	-예불 -108배	-다도 -탁본,	-역사교육 -야생화 그리기	-세계문화유산 탐방 -국화축제연계
석수암	-예불 108배 발우공양	-다도 -탁본 -사역과 사불	-달빛명상 -숲속힐링 체험	-달빛명상 -지역축제투어 -구시장·신시장 전통시장 투어
광흥사	-예불 -참회-정진 -명상	-탁본 -다도	-한글의 소리프로그램	-학가산온천 투어 -학가산 산행

Ⅳ. 결론

템플스테이는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과 사찰의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문화재를 결합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체험 참가자들의 반응이나 프로그램의 보완 사항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아 추후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영훈, “전통문화콘텐츠로써의 템플스테이 개발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연구, 제23호,pp.123-148,2007.
[2] 조현호,유영준, “문화이벤트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신라문화제를대상으로,”경주대학교 논문집,제11호,1999.
[3] 박석희, 신관광자원론:개발.이용.관리, 일신사 , 1994.
[4]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평가 및 운영 활성화 방안, 2009.